



즉시 배포용: 8/17/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암 검진을 강화하기 위한 800만 달러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주의 두 번째 주요 암 사망 원인인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보건부가 시행할 새로운 검진 이니셔티브에 8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5년에 걸쳐 교부될 것입니다. 매년, 약 10,000명의 뉴욕주민들이 대장암에 걸리며 그 결과로 3,000여명이 사망하지만, 정기 검진으로 이러한 진단 및 사망의 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이 형식의 암과 성공적으로 싸우기 위한 열쇠인데, 이 보조금은 조기 검진의 이점에 대해 뉴욕주민들을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보조금 확보를 도와주시고 뉴욕주를 더 튼튼하고 건강한 주로 만들도록 도와주신 연방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장암 검진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용종 즉 ‘폴립’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이러한 작은 용종에서 출발하지만 선별검사를 통해 발견되면 암으로 바뀌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대장암은 증상을 항상 야기하지는 않으므로 정기 검진이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오는 이 5년 보조금은 보건부 만성병통제국이 North Country, Syracuse, Buffalo, Rochester 및 뉴욕시의 전통적으로 낙후되어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검진 노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차수는 년 \$732,400를 제공하여 연방 적격 병원과 Medicaid 관리 케어플랜이 정기 대장암 검진을 장려하는 증거 기반 개입 작업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제공자에게 검진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환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환자 리마인더를 보내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암 검진을 위한 교통 지원 및 유급 휴무 같은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을 받을 구체적인 기관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차수의 년 \$915,500는 말기 대장암 증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지역인 Bronx의 50세~64세 사이 적격 무보험 및 저보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별 검사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이외에 이 보조금은 모두 Bronx의 무보험자를 섬기는 뉴욕시 보건병원공사의 주요 세 보건시설들에서 환자 네비게이터들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Lincoln Medical and Mental Health Center, North Central Bronx Hospital 및 Jacobi

Medical Center. 환자 네비게이터 사용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검진 완수를 촉진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장암은 너무 많은 뉴욕주민들의 목숨을 계속 앓아가는 킬러입니다. 조기 발견은 이 끔찍한 병을 퇴치하기 위한 열쇠인데 이 보조금은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암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진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하원의원 **Charles B. R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민들이 대장암을 발견하고 퇴치하도록 돕는 노력을 선도하는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매우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가 진단될 때까지는 암과 구체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더 많은 연방 보조금으로 뉴욕주민들은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필수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 이용 증대는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입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선임위원인 **Eliot Engel**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년 3월에 본인은 **Westchester** 및 **Bronx**의 본인 선거구민들에게 이 치명적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전국 대장암 인식의 달'을 우선적으로 강조합니다. 대장암은 겁나지만 진실은 적절한 검진으로 종종 조기 발견할 수 있어서 환자의 치료 옵션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대장암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배정된 연방 보조금은 현재 이 중요한 검진을 이용하지 않는 수 천명의 뉴욕주민들을 도울 것이며 본인은 **Bronx**의 무보험 및 저보험자 지원이 이 이니셔티브의 큰 부분이어서 특히 기쁩니다. 본인은 이러한 검진 확대를 뉴욕주를 위한 주요 우선순위로 삼은 **Cuomo** 지사와 그의 팀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José E. Serr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방 보조금은 뉴욕주, 특히 불우 지역의 높은 대장암 유병률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보조금의 상당 액수가 말기 대장암 증례 수가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는 **Bronx**에 배정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종종 침묵의 킬러인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열쇠입니다.”

하원의원 **Gregory W. Meek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장암은 매년 수 천 뉴욕주민들의 목숨을 앓아가지만 이러한 새 보조금으로 우리는우리 커뮤니티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 역할을 해야 하며, 본인은 치료책을 찾을 때까지 하원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암을 조기에 캐치하는 것이 이 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관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이 연방 보조금은 뉴욕주민들에게 당연한 저렴하고도 양질의 예방 관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암 투쟁에서 전향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두 차수는 2013-2017 뉴욕주 예방 어젠다 및 뉴욕주 종합 암 통제 계획에 나온 목표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80%의 대장암 검진율을 달성하기 위한 보건부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첫 해 이후의 두 차수를 위한 보조금 수준은 연방 보조금 가용성에 달려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에는 혈변, 위통 및 배변 변화 또는 예기치 않은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있는 뉴욕주민들은 즉각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뉴욕주민들은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 폴립, 대장암의 개인력 또는 가족력 또는 장 염증 질병 개인력이 있는 사람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 검진을 시작하고 얼마나 자주 치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 이외에 모든 뉴욕주민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금연, 건강식 유지, 알코올 섭취 제한 및 신체 활동 증대로 대장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Medicaid 및 뉴욕주 보건부에 참여하는 건강플랜을 통한 보험을 포함한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DOH의 암 서비스 프로그램이 주의 모든 카운티의 유자격자들에게 대장암, 유방암 및 경부암 검진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지역 암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http://www.health.ny.gov/diseases/cancer/services/community_resources/를 방문하거나 1-866-442-CANCER (2262)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